

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

<보도 내용 (한겨레<8.10>, 연합뉴스<8.10>, MBC 라디오<8.11> 등)>

- 다이옥신이 흙먼지로 날리게 되면 큰 위험이 발생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 중이며,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대기오염을 측정했는지 알 수 없음
- ‘용산어린이정원에서 대통령 부부 모습을 활용한 색칠놀이 도안을 어린이들에게 나눠준다’는 사실을 온라인에 알린 시민들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

□ 용산어린이정원 학교부지 공사장에 다이옥신 흙먼지가 날려 공사장 근로자 등의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인터뷰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.

○ 다이옥신 우려지역은 개방구역에서 완전히 제외하였으며, 추가적으로 20cm 이상 콘크리트로 완벽히 포장하여 기존 토양의 노출을 원천 차단한 만큼 흙먼지가 날릴 가능성이 없습니다.

○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혹시 모를 가능성까지 확인하고자 공기질 모니터링을 계속 시행하고 있으며, 다이옥신을 포함한 모든 항목에서 안전함을 지속 확인하였습니다.

* '22년 9월~'23년 7월 간 5회 환경 모니터링을 수행(다이옥신 포함 12종)하였으며, 전체 세부 결과는 용산어린이정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

□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제한 조치 관련하여 색칠놀이 도안 온라인 공개를 사유로 추정해 보도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

○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·경비 및 군사시설 보호, 용산어린이정원의 안전 관리 등을 고려하여 통제했습니다.

□ 국토교통부, 환경부, 대통령경호처는 향후에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용산어린이정원을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도록, 안전하고 평온한 공간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.

- 어린이정원의 환경문제와 출입제한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	책임자	과 장	정승수 (02-2131-2030)
		담당자	사무관	최정은 (02-2131-2036)
			사무관	김찬웅 (02-2131-2026)
담당 부서	환경부	책임자	과 장	윤은정 (044-201-7170)
		담당자	사무관	안성보 (044-201-7174)
담당 부서	대통령경호처	책임자	공보관	김수병 (02-800-5560)

